

# 강경화 외교부장관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일본 측 반응 전달 “양국관계에 올 파장 분명히 전하고 우려 표시” “우리도 대응조치 강구”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일본에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특별히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고노 외무상과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관련 절차 중단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요청은 분명히 했고, 그것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청난 파장에 대해서 우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일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응이 없었다”며 경제 보복조치 중단 요청에 대한 고노 외무상의 반응을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내일(일본)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라며 “우리도 여러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강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거듭 말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중단 등 일본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분쟁 중립 협정’을 중재안으로 제시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미측의 중재 협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 규제 문제 관련이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1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앞두고 마지막 담판에 나섰으나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일측의 반응은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서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밝혔다. /뉴스

##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김상조 靑 정책실장, “소재·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예측 어려워... 최대 5년 내 국산화”

김상조 靑 대 정책실장은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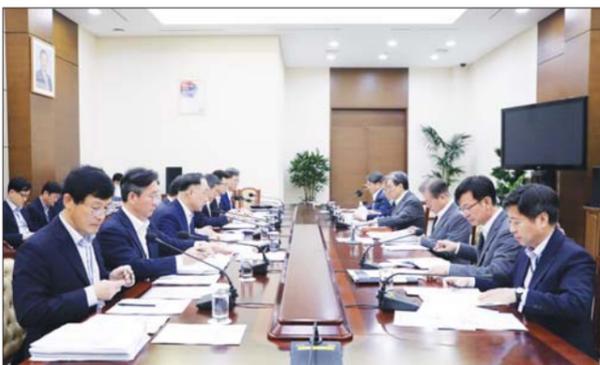


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산업의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만약 일본이 (2일)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언급했던 일본의 수출 보복 예상 품목과 관련 품목의 국산화 대책에 대해 김 실장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6개월, 1년 이내 단계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품목, 최대 5년 정도까지 성과를 내야 할 품목 등 여러 단계로 나눠 접

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기업과 이뤄지고 있는 소통과 관련해 김 실장은 “범정부적으로 정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둘째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열린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한다. 셋째 정부기업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는 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2년 연속) ‘오버 슈팅(over shooting, 일시적 요인에 따른 과도한 상승)’을 했다”면서 “다만 시장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있어 이제 안정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

##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상황점검회의

대응 조치 강구했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45분까지 135분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앞두고 마지막 담판에 나섰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날 정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시간 15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우

리 정부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오찬은 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 靑 “日 각의 결정 땀 文대통령 메시지 나올 듯”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 한마디가 신중

청와대는 1일 일본 정부가 내일 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 한국 배제 결정을 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 차원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에 대해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이 ‘대국민 담화’라는 단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라며 “무언가 결정이 났을 때

어떤 방식이 됐든 (대통령)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결국은 언론을 통해 다른 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사안이라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편 간 다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치열한 전략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조심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현

실화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통령 차원의 단호한 메시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상황 점검회의를 2시간 이상 주재한 것과 관련해 “통상 그런 종류의 회의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하지만 오늘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며 “그만큼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점검하고 체크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해당되는 관계부처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물론 매일 각 단위에서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정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9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 2019년 8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 중부비전센터

주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전북지방자치TV  
후원 | 동아보건대학미술학과, 전주시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8-9700